



한라생태숲의 전경(왼쪽)과 지난 4월 한라수목원에 산책 나온 시민들의 모습.

# 돌아보니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



제주 핫플레이스 (64) 한라수목원·한라생태숲

실내보다는 인파 적은 야외활동 추천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는 한라수목원  
다양한 숲의 향연 만나는 한라생태숲

봄이 왔음을 알리는 목련이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는데,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2020년 봄을 어떻게 추억하게 될까.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정말 좋은 날이 찾아 오기를, 모두들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시기가.

이번 '핫 플레이스'는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야외활동장소 위주로 소개하려 한다. 외출시에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하자.

▶한라수목원= '도심 속 공원' 한라수목원은 20만㎡에 이르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과

마주치지 않고 한적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거기에 제주도 자생식물 790종을 포함해 1100종의 식물이 곳곳에 있어 성큼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다.

한라수목원의 구성은 키가 작고 여러 개의 가지가 가진 눈향나무, 가막살나무, 작살나무, 백량금 등 관목이 우거진 '관목원'과 제주의 상징인 녹나무와 개기시나무, 왕벚나무가 식재된 '교목원', 덩굴식물이 있는 '만목원', 연못 위에 여러연꽃 등이 피어난 '수생식물원' 등이 있다. 특히 수생식물원에 있는 연못에는 겨울잠에서 깬 북방산개구리와 올챙이를 볼 수 있다. 마침 5일은 경칩(驚蟄)이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있는 난 전시실과 제주희귀식물전시실, 시청각실이 임시폐쇄됐고, 자연생태체험 학습관과 휴게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입장이 가능하다.

한라수목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실내 시설물 및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다"며 "외부시설은 탐

방이 가능하지만, 상시 마스크 등을 착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라생태숲=한라생태숲은 '한라산 식생의 축소판'으로 불릴 정도 제주 숲의 매력을 잘 간직하고 있다. 원래 목장으로 쓰다가 버려진 황무지였는데, 제주도가 2000년부터 '한라시험림(생태숲) 조성계획(안)'을 수립해 해발 550~912m에 수백종의 식물과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시작, 2009년 9월 문을 연 것이다.

숲의 구성은 ▷구상나무숲(2만6572㎡) ▷참꽃나무숲(18,270㎡) ▷목련총림(5440㎡) ▷수생식물원(4800㎡) ▷난대수종적응시험림(2만1080㎡) ▷암석원(4647㎡) ▷야생난원(7199㎡) ▷벚나무숲(4만7630㎡) ▷꽃나무숲(4만1879㎡) 등으로 다양해 혼잡하지 않게 조용히 봄이 오는 소리를 느낄 수 있다. 다만 한라생태숲 탐방객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임시 휴관된 상태다.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는 은방울꽃의 꽃말은 '다시 찾는 행복'이다. 이름 그대로 줄기에 조그만 방울이 매달려 있는데, 최근에는 결혼식 부케로 인기가 많다. 어쨌든 이 꽃의 꽃말처럼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일상의 행복을 다시 찾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진=이상국기자·한라일보 DB

## 제주바다와 문학 (43) 윤봉택 시 '제주 바람'



강정 해군기지 개발 직전의 강정바다와 강정 마을. 윤봉택 시인은 '마음 닷 내리는 강정 포구' 등 제주 바람 이는 바다를 노래했다.

### "숨비질 비명 너머 마음 닷 내릴 포구"

바다와 교류하는 제주 바람  
제주 땅 설운 사람들에게로  
숨통 터주던 강정 포구 추억

그는 제주를 제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바람이라고 부른다. 1991년 한라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 당선 작인 '제주 바람'을 맨 앞에 세우고 첫 시집 '농부에게도 그리움이 있다'(1996)를 묶어냈던 제주 윤봉택 시인이다.

'매마른 이랑마다 기다림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님'들에게 바친다는 그의 시들은 제주 바람을 타고 이 섬에서 이름없이 살아온 '설운'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가깝게는 땅을 일구는 사내들, 자맥질을 하는 여인들이 있고 저 멀리 90명이 넘는 강정마을 제주4·3희생자들이 있다. '제주 바람'은 바다와 교류하며 그 오래된 사연을 전한다.

제주 바람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물과 바다를 오가며 얼룩진 농부의 옷깃을 매만져주고 꽃과 나무의 씨앗을 땅 위에 뿌린다. 바닷길에 나설 채비를 하는 포구에 도 바람이 머물다 간다.

바람은 바다로 뛰어드는 아내에게 먼저 닿는다. '눈 내리는 날 예도/ 아내네/ 빗나간 손금 하나에 기대어/ 자맥질한다'('제주 바람')는 구절에 뒤이어 '그 숨비질의 비명'이 따른다.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 여인들의 호이호이 숨비소리는 고된 물질의 신호음이다. 바람은 자연산 툿을 들으

로 끌어올린 아내의 노동을 위무하듯 젖은 고무옷을 말려준다.

그 바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폭풍이 된다. 평온하고 고요한 나날에 풍파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는 "바람부는 날에는 온성이 운다"(한라일보 신춘문에 당선소감)고 했는지 모른다.

이촌마을 성천포에 일었던 개발 '제주 바람'을 맨 앞에 세우고 첫 시집 '농부에게도 그리움이 있다'(1996)를 묶어냈던 제주 윤봉택 시인이다. '매마른 이랑마다 기다림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님'들에게 바친다는 그의 시들은 제주 바람을 타고 이 섬에서 이름없이 살아온 '설운'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가깝게는 땅을 일구는 사내들, 자맥질을 하는 여인들이 있고 저 멀리 90명이 넘는 강정마을 제주4·3희생자들이 있다. '제주 바람'은 바다와 교류하며 그 오래된 사연을 전한다.

제주 바람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물과 바다를 오가며 얼룩진 농부의 옷깃을 매만져주고 꽃과 나무의 씨앗을 땅 위에 뿌린다. 바닷길에 나설 채비를 하는 포구에 도 바람이 머물다 간다. 바람은 바다로 뛰어드는 아내에게 먼저 닿는다. '눈 내리는 날 예도/ 아내네/ 빗나간 손금 하나에 기대어/ 자맥질한다'('제주 바람')는 구절에 뒤이어 '그 숨비질의 비명'이 따른다.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민 여인들의 호이호이 숨비소리는 고된 물질의 신호음이다. 바람은 자연산 툿을 들으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태양광 발전

##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전기요금 "확" 줄이기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결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